

Date: 26 Iyar 5786 (May 13, 2026)

Torah Portion: Bamidbar

Topic: 감추어진 점호, 제 1 부

마태복음 (24:29-36)은 우주적 대변동, 감추어진 때, 그리고 택함 받은 자들의 궁극적인 모임에 관한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하늘이 흔들리며, 권능과 큰 영광을 지니고 오시는 "인자(Son of Man)"의 출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운 징조들을 묘사한 직후, 본문은 불확실성에 관한 심오한 진술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계시와 감춤 사이의 이러한 긴박성은 종말론적 사상과 토라 가르침의 핵심에 그 뿌리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일한 패턴이 토라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여호와 (YHWH)께서는 회개와 신실함을 일깨우기에 충분할 만큼은 드러내시지만, 겸비와 경외감, 그리고 여호와께 대한 의존을 요구하기에 충분할 만큼은 감추십니다.

이 가르침의 배경은 『바미드바르』(민수기)의 서두 장들을 통해 조명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 장 1 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고 조직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언뜻 보기에 이 인구 조사는 행정적인 절차처럼 보이지만, 고전 주석가들은 이를 훨씬 더 심오한 의미로 이해합니다. 라쉬(Rashi)는 귀중한 보물을 끊임없이 다시 세어보듯이,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하신 사랑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반복하여 계수하신다고 설명합니다. 이 계수 작업은 단지 통계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적인 차원의 행위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이스라엘 네뻬쉬 각 개인은 하늘 아래서 개별적으로 서 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은혜보좌 아래 서 있습니다. 따라서 광야의 진영은 공동체로서 질서와 규례를 따르는 구원의 예언적 표증이 됩니다.

이러한 광야의 이스라엘 공동체 구조는 마태복음 24 장의 중요한 배경을 형성합니다. 민수기에서 지파들은 각자의 깃발과 지정된 위치에 따라 성막 (Mishkan)을 중심으로 배치됩니다. 모든 지파에게는 정해진 각 자리가 있습니다. 모든 가족에게는 맡은 기능이 있습니다. 심지어 레위인들조차도 각기 다른 책임에 따라 구분됩니다. 고핫 자손은 가장 거룩한 기구들을 운반하고, 게르손 자손은 덮개와 휘장들을 옮기며, 므라리 자손은 성소의 구조적 부재들을 운반합니다. 거룩함은 질서와 경계, 그리고 규례를 따르는 준비된 마음 자세를 요구합니다.

민수기 4 장 20 절에 나오는 경고는 특히 인상적입니다. 고핫 자손은 덮개가 벗겨진 거룩한 기구들을 들여다보아서는 안 되는데, 이는 "그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함에는 가까움과 숨겨진 비밀의 감추음이 모두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신성한 실체는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마태복음 24 장 전체에 걸쳐 나타납니다. 표적을 구하는 세대는 종종 신성한 신비에 대한 완전한 통찰력을 갈망하지만, 하늘은 그 시기를 감추십니다. 거룩한 그릇들이 운반되기 전에 덮여 있었던 것처럼, 최종적인 구원도 정해진 순간까지 부분적으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조하르는 감추임 자체가 계시의 일부라고 거듭 가르칩니다. 조하르의 언어로 말하자면, 숨겨진 빛은 부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충실함과 정화를 통해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어둠은 단순히 형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 장에서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것은 세상의 확신이 무너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왕국, 권력, 구조는 겉으로 보이는 영원성을 잃습니다. 안정적으로 보였던 것이 흔들리고, 오직 여호와의 영원한 왕국만이 남게 됩니다.

이와 같은 운행의 역동성은 사무엘상 20 장 18-42 절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고 경고하고, 둘은 초승달 잔치와 관련된 비밀스러운 징조를 계획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왕실 식탁에 없는 것 자체가 계시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의 빈자리는 사울 왕국의 핵심 기저를 드러냅니다.

마태복음 24 장과의 연관성은 매우 깊습니다. 현인들의 생각에 따르면, 초승달은 갱신되기에 앞서 감추어짐을 상징합니다. 달은 다시 밝아지기 전에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이 작아집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은 종종 감추어짐과 겉으로 드러나는 상실을 통해 나타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은 공개적으로 통치하기 전에 형제들의 안중에서 부재하고 거부당합니다. 그러므로 마쉬아흐 (Moshiach)의 패턴은 완전한 계시에 앞서서 전무함처럼 완전히 감추어짐이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샬롬